

Market Index / 11일

코스피지수 ▲ 2105.62 +7.62	코스닥지수 ▲ 629.13 +2.02	유가(WTI, 달러) ▲ 59.24 +0.22	환율(원)	1USD 100¥	1215.60 1117.85	1173.80 1079.41	1EUR 1CNY	1350.85 178.26	1298.15 161.30
--------------------------	-------------------------	------------------------------	-------	--------------	--------------------	--------------------	--------------	-------------------	-------------------

# 제주 '골프 파라다이스' 명성 되찾나

### 국회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75% 감면' 관련 법안 의결 내년 시행... 외국 찾는 국내골프관광객 제주 유인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 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감면됨에 따라 제주 골프 관광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시키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었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1일 이와 관련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도 골프장에 일정 부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의 '제주 골프관광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2016)에 따르면 제주 골프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은 2박 3일인 경우가 많다. 골프관광객 1인당 최소 2회에서 3회까지 라운딩한다고 가정하면 개별소비세(1인당 18홀 기준, 관련세 포함 1회 2만 1120원)를 2~3회 납부하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은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 의원은 "골프장 경쟁력 확보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 방문객들의 여타 비용 지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하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제도가 종료됐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부활될 예정이다.

### 11월 제주도 고용 동향 고용·실업률 동반 하락

11월 제주지역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1년 전에 비해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육아·통학·가사 등의 사유에 의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도 고용률은 69.3%(전국평균 61.7%)로 전년동월대비 0.3%p(전국평균 0.3%p 상승) 하락했다. 취업자는 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이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73.0%로 1년 만에 1.4%p 낮아졌다.

실업률도 1.6%(전국평균 3.1%)로 전년동월대비 0.4%p(전국평균 -0.1%p) 하락했다. 실업자는 6000명으로 1년 전에 견주 2000명이 줄었다.

도내 15세 이상 인구는 56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1000명(2.1%)이 늘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39만6000명으로 5000명 증가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70.5%로 0.6%p 내려앉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만6000명으로 1년새 7000명(4.1%) 늘어났다. 육아는 1만6000명으로 2000명(17.3%), 통학은 4만4000명으로 1000명(1.4%) 각각 늘었지만 가사는 3만7000명으로 3000명(-6.6%) 가량 감소했다.

사업별 취업자를 볼때, 농업·농림에서 6000명(9.0%) 늘어 갈금 등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김치가



수출·무역의날 "수고했습니다" 제9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11일 메종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 정부포상 대상으로 300만불탑은 웨이나코리아, 100만불탑은 트레이드 앤 트레이드 핀테크코리아 해마수산 프레스시스 Dermagics뷰티백토리가 받았다. 사진=제주도 제공

### 갯잎 '예냉처리' 했더니 가격 15% 상승

#### 잎 변색 등 상품저하 개선

여름철 진행된 시설채소 '예냉처리'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냉처리는 무더운 날씨에 과실이나 작물 따위를 수확한 후 곧바로 온도를 낮춰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8월 고온기에 시설갯잎을 예냉처리 후 출하했을 경우

경매 평균가격보다 15%가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고온기 시설채소 출하시 품질이 나빠지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예냉 및 저온저장이 가능한 저온저장고 30대를 보급한 바 있다.

이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갯잎 유통시장의 주요 출하단위인 벌크갯잎 2kg을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예냉처리한 갯

잎 가격이 1만7434원으로 예냉처리를 하지 않은 갯잎의 가격인 1만 5150원보다 2284원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상승 요인은 예냉 및 저온저장을 통해 여름철 갯잎 유통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잎의 변색, 저장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개선된 점을 소비자들과 경매사로부터 인정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 주간 재테크 핫 이슈 외국인 투자자 매도와 미중협상

### 미국 관세부와 결정 이번주 분수령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한가지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일 정도로 11월 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1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MSCI 이머징 지수 조정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이라는 추정이 있었다. 중국 A주 중형주가 신규 편입되면서 EM지수 내 한국 시장 비중이 축소되며 11월 7일 비중 조정 발표 이후 비중 축소폭이 당초 예상인 -0.1%p에서 -0.4~0.5%p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 축소는 지난 11월

된다. 최근에 집중된 매도 금액 중에 위에 말한 MSCI 지수 변경과 아랍코 상장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1단계 무역협상 체결 여부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 국내 증시에 영향이 높기 때문이다.

1단계 무역협상을 위해서 현재 중국은 서로간의 상응하는 관세의 철폐를, 미국은 농산물 구매 규모 확정 및 기술 이전 금지 조항을 요구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 예정되어 있는 15일 관세부와 여부에 따른 무역협상이 1단계 체결을 할지 아니면 대선을 1년여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을 접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 관세전쟁 확대조짐 투자자 불안감 상승 우려 "점진적 매수 전략 대응도 하나의 기회될 것"

26일 마무리 되었기에 12월 초에 이어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까지 MSCI 지수 조정으로 인한 매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매도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던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코 상장으로 인한 영향이다. 현재 아랍코는 전체 지분의 1.5%를 256억 달러 규모의 공모를 통하여 사우디 증시의 상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아랍코의 상장은 MSCI 이머징 지수 구성에 변화를 주게 되었으며 향후 12월 17일 이전에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수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내 영향은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전적으로 IPO 자금을 위해서 매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근의 대규모 외국인 매매를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12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선제적 매도로 예상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관세 전쟁이 다시 시금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15일 관세부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사례를 본다면 관세부와 이전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하락 이후 부과 후에는 반등이 나왔다. 관세부과가 파국이 아닌 협상 재개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지속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참고한다면 관세부과로 인한 국내 증시의 조정은 나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점진적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p><b>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li> <li>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li> <li>남원 하례리 2300㎡(자연녹지(과))</li> <li>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li> <li>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li> <li>서귀포 강정동 2100㎡(자연녹지(과))</li> </ul>	<p><b>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li> <li>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li> <li>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li> <li>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li> <li>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li> <li>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li> </ul>
---	--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p><b>※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li> <li>해안동 생관원(아(목장) 맹지 28,842㎡ 6억</li> <li>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li> <li>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li> <li>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li> </ul>	<p><b>※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월수상봉저수지인근 카페용지 620㎡ 3.1억</li> <li>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li> <li>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9억원</li> <li>함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 430㎡ 1.5억</li> <li>관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9억원</li> </ul>	<p><b>※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9억</li> <li>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li> <li>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원</li> <li>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li> <li>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li> </ul>
--	---	---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동·서양난, 촉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꽃보라화원** ☎ 746-0014, H-P 010-3693-556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 (제주시 신광로8길 3) [www.boraflower.com](http://www.boraflower.com)